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1, pp.101-142
<https://doi.org/10.29212/mh.2021..121.1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

김덕원*

1. 머리말
2. 한강유역의 진출과 려라밀약의 성립
3. 신주의 설치와 관산성 전투의 발생
4. 맺음말

1. 머리말

551년 신라는 백제·가야와 함께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공략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한강 상류지역에 10군을,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에 6군을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강유역으로의 진출은 백제 성왕이 주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¹⁾ 신라 진흥왕

* 명지대학교 사학과 강사

1) 노중국,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 28, 1981 ;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고구려사연구 I -논문편-』, 연세대 출판부, 1987 ; 후보돈,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의 의도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였다.²⁾ 신라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이후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마침내 삼국통일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은 신라사뿐만 아니라 한국고대사의 전반적인 판도를 변화시켰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발생하였던 여러 사건들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551년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때부터 554년 관산성 전투까지의 여러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강 戰役(551~554)’³⁾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강 전역’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기는 551년 신라가 백제·가야와 함께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10군을 설치하고, 이후 고구려와 려라밀약을⁴⁾ 체결하여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역을 빼앗기 전까지의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후반기는 553년 백제의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한 이후 이듬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제가 신라를 침입하여 관산성 전투가 발생하고 성왕이 죽임을 당하는 시기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2) 김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배경」, 『서울과 역사』 109, 2021.

3) 본고에서의 ‘戰役’이라는 용어는 단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단발적으로 벌어지는 ‘전투’보다는 크고, 장기간에 걸쳐 광역의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전쟁’보다는 작은 형태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4) 려라밀약에 대한 연구성과는 노태돈, 「고구려의 한수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1976 ;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 선석열, 「한강유역 쟁탈을 둘러싼 삼국의 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 2013 ; 강민식, 「552년 백제의 한강유역 포기[棄]와 신라·고구려의 밀약설」, 『선사와 고대』 40, 2014 ; 이영재, 「려라밀약설의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0, 2015 참조. 한편 고구려가 신라에게 화친을 제의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려라밀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같은 의미에서 백제가 신라에게 먼저 화친을 제의한 ‘제라동맹’ 역시 마찬가지이다(김덕원, 앞의 논문, 2021, 8쪽 주 4) 참조).

‘한강 전역’은 시기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반기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과정이고, 후반기는 한강유역을 영역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반기는 거칠부가 그리고 후반기는 김무력이 대표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진흥왕대의 정국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것은 이후 진지왕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강 전역’의 특징은 그 전후에 발생하였던 다른 전투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였던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강 전역’의 처음 시작인 551년 한강유역의 진출은 백제·신라·가야와 고구려의 대결이었고, 마지막인 554년 관산성 전투는 백제·가야·왜와 신라·고구려가 대결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400년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정⁵⁾ 이후 최대의 국제전이었고, 그만큼 한강유역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을 살펴보면서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성립된 러라밀약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신주의 설치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관산성 전투에 대해서도 고찰하면서 ‘한강 전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언급된 문제들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외하고, 다른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5)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18~19쪽.

2. 한강유역의 진출과 러라밀약의 성립

가.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신라 진흥왕은 548년 15세가 되자 친정을 실시하였고, 이듬해 양의 사신이 파견되었던 것을 계기로 한강유역의 진출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였던 것 같다.⁶⁾ 그리고 550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도살성과 금현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때 두 성을 모두 차지하면서⁷⁾ 한강유역의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551년에는 개국으로 연호를 개원하고, 낭성으로 순수를 하면서⁸⁾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신라가 백제와 더불어 한강유역의 진출을 협의하였던 시기는 아마도 도살성과 금현성을 차지한 이후인 550년 후반기 무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⁹⁾ 백제 성왕이 한강유역의 진출 계획을 먼저 제안하였고, 신라 진흥왕이 이것을 받아들여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¹⁰⁾ 이후 양국은 일정한 직위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사전에 협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신라에서는 거칠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젊었을 때 고구려 지역을 정찰하였기 때문에 한강유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당시 고구려의 내부 사정에도 정통하였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540년(성왕 18) 고구려의 우산성을 공격하

6)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22쪽.

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1년 3월.

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2년 정월 및 3월.

9)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31쪽.

10) 임평섭, 「진흥왕 집권 초기의 정치구도와 한강 유역 진출」, 『신라문화』 53, 2019, 73쪽.

있던 연회나,¹¹⁾ 550년 고구려의 도살성을 공격하였던 달기가¹²⁾ 참여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들은 공략 시기와 지역, 방법 등의 군사 작전을 비롯하여 전후 처리에 대한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끝마친 후에 양국은 드디어 한강유역을 공략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A-1. (3월) 왕이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침략케 하여, 이긴 기세를 타고 10군을 빼앗았다.¹³⁾
- A-2. 12년 신미에 왕이 거칠부와 대각찬 구진, 각찬 비태, 잡찬 탐지, 잡찬 비서, 파진찬 노추, 파진찬 서력부, 대아찬 비차부, 아찬 미진부 등 여덟 장군에게 명하여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침공하게 하였다. 백제 사람들이 먼저 평양을 격파하고 거칠부 등은 승리의 기세를 타서 죽령 바깥, 고현 이내의 10군을 취하였다. ...¹⁴⁾
- A-3. (가을 9월) 신라가 공격해 와서 10성을 빼앗아 갔다.¹⁵⁾
- A-4. 이해. 백제 성명왕이 몸소 군사와 두 나라의 병사를 거느리고<두 나라는 신라와 임나이다.> 고구려를 정벌하여 한성의 땅을 차지하였다. 또 진군하여 평양을 토벌하였다. 모두 6군으로 마침내 고지를 회복하였다.¹⁶⁾

위의 기록은 ‘한강 전역’의 처음 시작인 신라와 백제·가야의 한강유역 진출에 대한 내용이다. 위의 기록을 바탕으로 공략 시기와 지역, 방법 등 당시의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략 시기에

11)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18년 가을 9월.
 12)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28년 봄 정월.
 1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2년.
 14)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
 15)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7년.
 16)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2년 시세.

대한 문제인데, 사료 A-2는 백제가 먼저 평양을 격파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사료 A-4는 백제가 한성의 땅을 차지한 후에 또 진군하여 평양을 토벌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사료 A-1·2에는 백제가 평양을 격파한 후에 신라가 고구려를 공략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라는 백제가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고구려에 대한 공략을 시작하였다. 신라가 백제의 승리 소식을 확인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당시 양국의 주력군이 주둔하였던 지역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리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며칠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라와 백제가 동시에 고구려를 공략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신라와 백제의 공략 지역은 신라가 한강 상류지역을, 백제가 한강 하류지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상호 구분하였다. 다시 말하면 양국은 동일한 지역을 합동으로 공략한 것이 아니라 각각 상이한 지역을 공략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이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술이라는 사실이다. 즉 551년 이전에는 제라동맹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쪽이 구원을 요청하면, 구원을 요청 받은 쪽이 해당 지역에 구원군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방어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551년에는 신라와 백제가 각각 고구려의 상이한 지역을 공략하였는데, 이것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전술이다. 또한 제라동맹 성립 이

17) 임평섭은 진흥왕이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백제가 공격을 선행하고 그 추이에 따라 군사를 움직이는 것으로 백제와 합의했을 것이라고 하였다(임평섭, 앞의 논문, 2019, 74쪽). 그러나 백제가 고구려 공략에 실패한다면 신라는 공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백제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양국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백제가 신라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였을지 의문이다. 한편 이도학은 신라는 지금의 장호원 쪽에서 백제와 합류한 후에 여주·이천을 지나 광주(한성)를 공취하고 서울(남평양)까지 점령한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철령 진입은 신라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이라고 하였다(이도학, 「신라의 북진경략에 관한 신고찰」, 『경주사학』 6, 1987, 32~33쪽)

후 고구려에 대한 최초의 공동 공략이며, 특히 공략 지역을 상이하
게 선정된 것 역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었다.

공략 지역의 선정은 공략 방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다. 신라와 백제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각각 선택하였겠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양국은 공략 지역을 광범위하게 선정함으로써 고구려의 방어체계를 혼란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대내외적으로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귀족들의 내분과 서북방지역에서 북제와 돌궐 등 이민족 침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¹⁸⁾ 따라서 전선이 확대되면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것은 신라와 백제의 공략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신라는 한강 상류지역에 10군을,¹⁹⁾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에 6군을²⁰⁾ 차지하였다. 이곳은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된 주요 교통로였으므로,²¹⁾ 양국은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구려 영역 내의 깊숙한 곳까지 진출할 수가 있었다.

신라와 백제의 공략 방법은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고구려의 방어체계를 혼란시키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

18) 노태돈, 앞의 논문, 1976 ; 앞의 책, 1999, 403~404쪽 ; 이도학, 앞의 논문, 1987, 34쪽 ; 이인철,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정에 대한 고찰」, 『향토서울』 57, 1997, 17쪽 ;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 2006, 45쪽.

19) 10군의 위치 비정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도학, 앞의 논문, 1987, 35쪽 ; 이인철, 앞의 논문, 1997, 22쪽 ;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2002, 14쪽 ; 장창은,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과 관산성 전투」, 『진단학보』 111, 2011 ;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167~171쪽 참조. 한편 강민식은 신라가 얻은 10성은 551년 전투에 한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548년 백제를 구원한 이후 계속된 대고구려 전투의 결과라고 하였다(강민식, 앞의 논문, 2014, 152쪽)

20) 6군의 위치 비정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도학, 앞의 논문, 1987, 35쪽 ; 이인철, 앞의 논문, 1997, 23쪽 ; 임기환, 앞의 논문, 2002, 14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72~176쪽 참조.

21)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72쪽.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서 양국은 최우선적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적의 방어체계를 혼란시키기 위해서는 기습 공격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의동 보루와 아차산 보루에서 출토된 유물의 출토 상태 등 고고학적인 발굴성과를²²⁾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상이한 지역을 공략하는 위장전술 또는 기만전술을 사용하여 양동작전을 전개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신라와 백제는 이러한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한강유역을 장악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와 백제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였던 시기는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백제본기에는 551년의 기록이 누락되었고, 신라본기에는 3월, 고구려본기에는 9월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신라 진흥왕은 3월에 낭성으로 순행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한강유역의 진출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²³⁾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9월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²⁴⁾ 아마도 신라와 백제는 551년 9월에 돌궐이 고구려를 침입하였던 것을 이용하여²⁵⁾ 기습적으로 한강유역을 공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공격을 하였던 가해자인 신라와 백제의 기록보다 공격을 받았던 피해자인 고구려의 기록이 더 정확

22) 서울대 박물관 편, 『고구려 -한강유역의 고구려 요새-』, 2000, 42쪽 ;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2013, 19~32쪽 ;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46쪽 ;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98~99쪽.

23)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33쪽.

24) 노중국, 앞의 논문, 2016, 50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66쪽 주 37). 한편 김주성은 전투가 3월에 시작되어 9월에 끝났을 것으로 파악하였다(김주성, 「성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2000, 300쪽).

25) 이인철은 돌궐이 고구려에 침입함으로써 고구려와 나제 양국 간에 군사적 대결의 팽팽한 균형관계가 깨어지고 신라와 백제가 북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이인철, 앞의 논문, 1997, 17쪽).

하다는 사실이다.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인물은 거칠부이다.²⁶⁾ 이것은 그의 젊었을 때의 활동이 반영된 결과인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B. 거칠부는 젊었을 때 사소한 일에 거리끼지 않았고 원대한 뜻을 품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구경하였다. 문득 고구려를 정찰하려고 그 땅에 들어갔다가 법사 혜량이 절을 개창하여 불경을 설법한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그곳에 나아가 강경을 들었다. ... 이때 혜량법사가 자기의 무리를 이끌고 길거리로 나오니, 거칠부가 말에서 내려 군례로 인사를 올리고 앞으로 나가 말하기를 “전에 유학할 때 법사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보전하였는데, 지금 뜻밖에 서로 만나니 어떻게 보은하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법사가 대답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라건대 나를 그대 나라로 데려가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에 거칠부가 수레에 태워 함께 돌아와서 왕을 뵈게 하니, 왕이 법사를 승통으로 삼았다. ...²⁷⁾

위의 기록은 거칠부의 젊었을 때 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거칠부는 젊었을 때 승려가 되어 고구려를 정찰하였는데, 아마도 고구려의 영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던 것 같다. 이때의 경험으로 그는 한강유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당시 고구려의 내부 사정에도 정통하였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그가 한강유역으로의 진출을 주도하였다.²⁸⁾

26) 거칠부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후보돈, 「거칠부의 출가와 출사」, 『한국고대사연구』 76, 2014 참조.

27)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

28) 후보돈, 앞의 논문, 2014, 188~189쪽 ; 임평섭, 앞의 논문, 2019, 68쪽.

신라가 고현(지금의 철령)까지²⁹⁾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거칠부의 경험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거칠부는 젊었을 때 고구려의 남진 교통로를 따라 고현까지 갔었던 것 같으며, 이때의 경험이 신라의 북진에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진흥왕은 이러한 점을 기대하고 병부령인 이사부를 대신하여 거칠부를 중용하였으며, 그는 진흥왕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였다.

거칠부는 북진 과정에서 고구려의 혜량법사를 만나는 성과도 거두었다. 거칠부는 젊은 시절에 고구려를 정찰할 때 혜량법사에게 강경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혜량법사는 고구려의 국내 정치가 불안하자 지방으로 피신하였는데, 아마도 고현 부근의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⁰⁾ 혜량법사는 거칠부가 이곳까지 진출하자 무리를 이끌고 찾아왔으며, 거칠부는 혜량법사와 함께 신라로 돌아왔다.³¹⁾ 진흥왕은 혜량법사를 승통(국통)으로 삼았고, 이후 진흥왕대의 정치와 불교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9) 고현의 위치 비정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도학, 앞의 논문, 1987, 33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67~168쪽 참조.

30) 혜량법사가 활동하였던 지역은 국경지대인 죽령 이북 고현 이내의 10군의 근방(이정숙, 「진흥왕대 우륵 망명의 사회 정치적 의미」, 『이화사학연구』 30, 2003 ; 『신라 중고기 정치사회 연구』, 혜안, 2012, 45쪽), 또는 한강유역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나(주보돈, 앞의 논문, 2014, 189쪽) 한성 주위로(임평섭, 앞의 논문, 2019, 68쪽) 이해하고 있다. 당시 혜량법사는 고구려의 국내 정치가 불안하여 지방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고구려 남진의 전진 기지였던 한성의 주변 지역에 거주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현과 같은 지리적으로 외딴 지역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한다.

31) 540년대 후반 무렵에 대가야의 우륵이 신라로 망명하였을 때 거칠부가 이에 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이정숙, 앞의 논문, 2003 ; 앞의 책, 혜안, 2012, 46쪽 ; 백승충, 「우륵의 망명과 신라 대약의 성립」, 『한국문화연구』 29, 2007, 165쪽 ; 유우창, 「6세기 우륵의 망명과정」, 『역사와 경계』 108, 2018, 59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34쪽), 혜량법사가 망명할 때에도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해결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나. 려라밀약의 성립

551년 신라와 백제는 상호 연합하여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던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이곳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양국 사이에는 틈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C. 5월 무진 초하루 을해에 백제·가라·안라가 중부의 덕솔 木叒 今敦·河內部阿斯比多 등을 보내어 “고(구)려가 신라와 화친하고 세력을 합쳐 신의 나라와 임나를 멸하려고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구원병을 청해 먼저 불시에 공격하고자 합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은 천황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³²⁾

위의 기록은 신라와 고구려의 화친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기록은 신라와 고구려의 ‘밀약’이³³⁾ 성립된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552년 백제는 가라·안라와 함께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와 고구려가 화친하여 백제와 임나의 멸망을 도모한다고 알리고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왜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이 5월이었기 때문에 백제는 그 이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적어도 신라와 고구려가 화친하였던 시기는 신라가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한 이후부터 552년 5월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32)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3년 5월 무진.

33) 일반적으로 ‘밀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노태돈, 앞의 논문, 1976 ; 앞의 책, 1999, 429~434쪽), 화호(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0쪽), 협약(주보돈, 앞의 논문, 2006, 97쪽), 통호(박윤선, 「6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의 통호와 이나사마도」, 『역사와 현실』 77, 2010, 216쪽 주 1) 참조), 담판(이영재, 앞의 논문, 2015, 83쪽 주 3) 참조)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당사국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방법에 따라 표현한 것인데, 큰 관점에서 보면 모두 ‘동맹’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다.³⁴⁾ 아마도 신라가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한 직후에 이미 고구려와 밀약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D. 승성 3년 9월 백제 병사가 진성을 침범하여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 필을 빼앗아 갔다. 이보다 앞서 백제가 신라와 군사를 합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하였는데, 진흥왕이 말하기를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감히 (고구려가 망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이 말이 고구려에 전해지니 고구려는 그 말에 감복하여 신라와 우호를 맺었다. 그러나 백제는 이를 원망하였으므로 (신라를) 침범하였다.³⁵⁾

위의 기록은 신라와 고구려의 ‘밀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승성 3년인 554년에 백제가 신라의 진성을 침범하여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 필을 빼앗아 갔다. 백제가 진성을 침범한 이유는 함께 고구려를 치자는 백제의 제안을 신라가 거절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바탕으로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밀약’이 성립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³⁶⁾

주목되는 것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밀약’을 주도한 것은 대체로

34) 김주성, 앞의 논문, 2000, 301쪽 ;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0쪽 ; 후보돈, 앞의 논문, 2006, 96~97쪽 ; 김수태, 「백제 성왕대의 변경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44, 2006, 137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81쪽 ;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88쪽.

35)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흥왕.

36) 최근에 려라밀약을 부정하는 견해와(강민식, 앞의 논문, 2014) 더불어 백제가 조작하여 만들었다거나(이영재, 앞의 논문, 2015) 또는 근거가 불확실하고 설득력이 약하다는(임평섭, 「신라 진흥왕대 주의 폐치와 순수 -진흥왕순수비를 통해 살펴본 순수 전략적 의미-」, 『신라문화』 48, 2016, 79쪽 주 25) 및 85쪽)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신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³⁷⁾ 신라는 한강유역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고구려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개선시키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진흥왕의 말이 고구려에 전해지면서 신라와 우호를 맺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라보다 고구려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즉 고구려는 대내외적으로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귀족들의 내분과 서북방지역에서 복제와 돌궐 등 이민족 침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라에게 밀약을 제안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³⁸⁾ 사실 신라는 10군을 차지한 승자의 입장이라 다소 느긋한 상황이었고, 고구려는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급하였을 것이다. 고구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신라가 먼저 밀약을 제안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하고 다급하였던 고구려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진흥왕의 말이 고구려에 전해진 것은 사신 파견 등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³⁹⁾ 아마도 신라에서 활동하였던 고구려 첩자나 세작의 정보 수집의 결과와 같은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구려가 진흥왕의 말에 감복하였다는 표현에는 이미 고구려가 밀약을 제안하려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진흥왕의 말은 고구려가 밀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신라와 고구려가 밀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한강유역의 진출을 위

37) 이인철, 앞의 논문, 1997, 23쪽 ;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49~50쪽 ; 주보돈, 앞의 논문, 2006, 95쪽 ; 김수태, 앞의 논문, 2006, 137쪽 ;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88쪽. 한편 노태돈은 신라와 고구려간의 화호는 어느 편이 선도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노태돈, 앞의 논문, 1976 ; 앞의 책, 1999, 433쪽).

38) 전덕재, 「관산성전투에 대한 새로운 고찰」, 『신라문화』 34, 2009, 48쪽.

39) 임평섭, 앞의 논문, 2019, 75쪽.

해 신라와 백제가 협의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위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이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에도 신라에서는 거칠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⁴⁰⁾ 여기에도 그의 젊었을 때의 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이에 반하여 고구려는 뚜렷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데, 551년(양원왕 7)에 돌궐의 침입을 물리쳤던 고희이나,⁴¹⁾ 557년 태자로 책봉된 양성이⁴²⁾ 참여하지 않았을까 한다. 아마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태자 양성이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들은 밀약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양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현실적인 목적에 대한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신주의 설치와 관산성 전투의 발생

가. 신주의 설치

551년 한강 상류지역에 10군을 차지한 신라는 고구려의 추가 공략을 요구하는 백제의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고구려와 밀약을 체결

40) 주보돈은 거칠부가 혜량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밀약을 주도하고 성사시켰다고 하는데(주보돈, 앞의 논문, 2006, 98~99쪽),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찌면 혜량법사가 밀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혜량법사의 “나를 그대 나라로 데려가기 바란다[願致之貴域].”라는 말에는 밀사로서의 사명이 숨어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를 수레에 태워 돌아왔다는 거칠부의 접대에서도 그에 대한 일정한 차원의 예우가 반영되어 있다. 비록 혜량법사는 고구려의 국내 정치가 불안하여 지방으로 피신하였지만, 조국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끝내 외면하지는 못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선석열은 러라밀약은 거칠부와 혜량법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고(선석열, 앞의 논문, 2013, 113쪽), 박운선은 여라간의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에 대해 안라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나사와 마도 등으로 보았다(박운선, 앞의 논문, 2010, 216쪽).

41)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7년 가을 9월.

42)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13년 여름 4월.

결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백제가 장악하고 있었던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E-1. 가을 7월에 백제의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⁴³⁾
- E-2. 조부 무력은 신주도행군총관이 되었다.⁴⁴⁾
- E-3. 가을 7월에 신라가 동북쪽의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였다.⁴⁵⁾
- E-4. 이 해에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가 한성에 들어가 살았는데, 현재 신라의 우두방·니미방이다<지명은 자세하지 않다>.⁴⁶⁾

위의 기록은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역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이다. 신라의 신주 설치와⁴⁷⁾ 관련하여 대체로 백제에게 빼앗은 지역의 범위, ‘동북 변경[東北鄙]’과 평양의 위치, 그리고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버린[棄] 이유, 『일본서기』 기록의 시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려라밀약이 성립된 것이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하였던 직후인 551년 9월부터라고 하면 약 2년 정도, 백제가 왜에 사신을 보냈던 552년 5월 이전이라고 하면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삼국은 한강유역의 진출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의 체제정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553년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역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가 신주를

4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4년 가을 7월.

44)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45)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31년 가을 7월.

46)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3년 시세.

47) 황보경, 「신주 위치에 대한 연구」, 『백산학보』 53, 1999 ; 『신라문화연구』, 주류성, 2009 ;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향토서울』 73, 2009.

설치한 것은 한강유역을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실시하여 거점지배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⁴⁸⁾ 결국 신라와 고구려는 각각 현실적으로 추구하였던 목적을 이루었으며,⁴⁹⁾ 이러한 의미에서 려라밀약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가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던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F. 8월 신묘 초하루 정유에 백제가 상부의 나솔 科野新羅, 하부의 固德汶休帶山 등을 보내 표를 올려 “... 올해 문득 들으니 신라가 박국과 함께 모의하여 ‘백제와 임나가 자주 일본에 나아가니, 생각건대 군사를 빌려 우리나라를 치려는 듯하다. 이 일이 만약 사실이라면 나라의 패망은 발꿈치를 들고 기다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일본의 군대가 떠나기 전에 안라를 공격해 빼앗아 일본과의 통로를 끊자.’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계획이 이와 같으니, 신 등이 이를 듣고 두려운 마음을 깊이 품었습니다. 바로 빠른 배로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아뢰입니다. 천황께서 빨리 전군과 후군을 보내 서로 이어 와서 구원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⁵⁰⁾

48) 이와 관련하여 임기환은 고구려와 신라는 한강유역인 서울지역 지배방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고구려는 군사 거점적 성격이 훨씬 두드러졌던 것에 반하여 신라는 주민의 이주를 피하여 영역화 방향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파악하였다(임기환, 앞의 논문, 2002, 30쪽). 김영심도 고구려나 백제는 한강유역을 통치하기 위해 특별히 지방제도나 군사제도를 정비한 사실이 없었지만, 신라는 한강 상류지역의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상주정을 설치하였다고 파악하였다(김영심, 『관산성전투 전후 시기 대가야백제와 신라의 대립』,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려대학교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7, 248쪽 주 51) 참조). 이러한 견해들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지방제도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거점지배를 추진하였음을 검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49) 려라밀약에서 신라와 고구려의 가장 큰 목적은 신라는 한강유역을 장악하여 중국과 직접 통교하는 것이고, 고구려는 제라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었다(이도학, 앞의 논문, 1987, 34쪽 ;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49~50쪽 ; 후보돈, 앞의 논문, 2006, 104쪽 ; 전덕재, 앞의 논문, 2009, 48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81쪽).

위의 기록은 백제가 왜에 신라와 고구려의 공격 모의를 전하였다는 내용이다. 553년 8월 이전에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가 안라를 공격하려고 모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군을 요청하였다. 백제가 이러한 정보를 알고 곧바로 빠른 배로 왜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다급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당시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가 한강 하류지역이 아니라 안라의 공격을 모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백제의 사신이 왜에 도착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하였다는 것은, 신라가 신주를 설치하기 이전에 백제를 출발하였음을 뜻한다.⁵¹⁾ 백제의 사신은 그 사이에 신라가 신주를 설치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단지 모의한다는 사실만 전하였다. 신라와 고구려가 백제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인지, 아니면 백제가 정세 판단을 잘못된 것인지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아마도 가야지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백제 성왕의 대외정책을⁵²⁾ 감안하면 후자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신라의 신주 설치에 백제 성왕의 국제정세의 판단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라가 신주를 설치하였던 것은 가야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백제와의 대결 과정과 관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는 고구려와 안라를 공격할 것처럼 모의함으로써 백제가 가야지역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는

50)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4년 8월 신묘.

51)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신라의 신주 설치에 7월 말 무렵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김영심은 백제 사신이 왜에 파견되었던 것은 한강유역을 탈취당한 이후의 기록으로 파악하였다(김영심, 앞의 논문, 2007, 252쪽 주 56) 참조). 그렇다면 백제 사신은 신라와 고구려의 공격 모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역을 빼앗은 사실이나 신주를 설치한 사실을 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 사신은 한강유역을 탈취당하기 이전에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2) 강종원, 「성왕의 대외정책과 551년 전쟁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37, 2021, 57~65쪽.

일종의 기만전술을 사용하였다. 아마도 551년에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때 사용하였던 전술을 바탕으로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신라는 ‘무혈입성’이라고⁵³⁾ 이해할 정도로 비교적 손쉽게 이 지역을 차지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과정에서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보다는 가야지역을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게 선택하여 이 지역을 포기하였고,⁵⁴⁾ 이후 더 이상 한강유역으로는 진출하지 못하였다.

신라의 신주 설치의 한강유역의 확보뿐만 아니라 신라의 정치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新’州라고 하는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의 이름 앞에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주보다 특별하였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⁵⁵⁾ 이것은 당시 신주가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신주는 진흥왕대에 처음으로 설치한 지방제도이다. 특히 진흥왕이 551년(진흥왕 12) 정월에 개국으로 연호를 개원하고⁵⁶⁾ 추진하였던 한강유역 진출의 성공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진흥왕이 개국으로 연호를 개원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신라를 계획한 것으로

53)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0~51쪽 ; 주보돈, 앞의 논문, 2006, 91~92쪽 ;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98쪽

54) 김수태, 앞의 논문, 2006, 138~139쪽.

55) 6세기 이후 설치한 ‘주’에 대한 기록은 505년(지증마립간 6) 실질주, 512년(지증마립간 13) 명주와 하슬라주, 524년(법흥왕 11) 상주, 525년 사벌주 등이 있다. 524년의 상주는 525년의 사벌주와 동일하지만, 1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상주는 하주와 대응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552년(진흥왕 13)에 함께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는데(주보돈, 『6세기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 『한국고대사연구』 11, 1997 ;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1998, 104~107쪽), 하주는 555년에 설치되었다(『삼국사기』 권34, 지리1, 양주, 화왕군). 상주는 ‘위의 주’, 하주는 ‘아래의 주’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지리적인 기준은 경주를 중심으로 상하로 구분하였음은 물론이다.

56) 일반적으로 진흥왕은 551년 18세가 되자 왕태후의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실시하면서 개국으로 연호를 개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669쪽). 그러나 진흥왕은 548년 15세가 되었을 때 친정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김덕원, 앞의 논문, 2021, 24쪽).

로, 진흥왕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⁵⁷⁾ 즉 개국이라는 연호에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진흥왕의 정치적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⁵⁸⁾ 개국과 신주는 같은 해에 한강유역의 진출이라는 같은 목적을 계기로 만들어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즉 이전과는 다른 ‘나라를 열은[開國]’ 신라의 ‘새로운 주[新州]’라고 하는 진흥왕의 정치적 이상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신주는 진흥왕이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개국의 결과로써 한강유역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주에 아찬 김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신라의 군주는 급찬~이찬까지의 관등이 임명되었는데,⁵⁹⁾ 실제로 중고기에는 사찬이 가장 많았다. 특히 군주를 거쳐야만 병부령과 상대등으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대 제1급의 인물이 임명되었다.⁶⁰⁾ 그런데 김무력은 532년(법흥왕 19) 신라에 투항하였던 금관가야 구형(해)왕의 아들로,⁶¹⁾ ‘가야계’ 출신이었다. 이러한 김무력을 진흥왕의 정치적 이상이 깃들여 있는 신주의 군주로 삼았던 것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51년 한강유역의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진흥왕의 왕권과 권위는 이전에 비하여 한층 높아졌다. 김무력도 적성지역으로의 진출⁶²⁾ 등 활발한 군사활동을 바탕으로 진흥왕대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김무력을 신주의 군주로 삼을 수 있었

57) 주보돈, 앞의 논문, 2014, 190쪽 ; 「황룡사의 창건과 그 의도」, 『한국사연구』 176, 2017, 19쪽.

58)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32쪽.

59)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무관, 외관.

60) 신형식, 「신라군주고」, 『백산학보』 19, 1975 ;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212~215쪽.

6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19년 및 권41, 열전1, 김유신 (상).

62) 「적성비」에 ‘武力智’가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김무력이 적성지역으로 진출할 때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35쪽).

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무력은 역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칠부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진흥왕대의 정국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것은 이후 진지왕대까지 이어졌다.⁶³⁾

김무력을 신주의 군주로 삼았던 것은 진흥왕대의 대복속민정책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532년 금관가야 세력의 투항을 비롯하여 새롭게 복속한 적성지역의 주민들과 망명한 우륵의 가야 세력 등을 편입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포섭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적성비」와⁶⁴⁾ 「마운령비」의⁶⁵⁾ 비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⁶⁾

이와 같이 진흥왕대에는 새로운 복속지의 확대에 따라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영역화를 추진하면서 신라에 편입된 세력들을 포섭하여 신라화를 꾀하였다. 김무력을 신주의 군주로 삼았던 것도 이러한 진흥왕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신주에 소속된 군사들 중에는 ‘가야계’의 세력들이 존재하였던 것 같은데,⁶⁷⁾ 이들은 544년 관산성 전투에 참여하여 신라가 승리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관산성 전투의 발생

553년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가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음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게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

63) 김덕원, 「신라 진지왕대의 정국운영」, 『이화사학연구』 30, 2003 ;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2007, 49~50쪽 ; 임평섭, 앞의 논문, 2019, 79~80쪽.

64)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앞의 책, 1992, 35~36쪽.

65)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앞의 책, 1992, 90쪽.

66) 이일규, 「신라 진흥왕대의 새 영토·주민 시책」, 『한국고대사연구』 96, 2019, 282~284쪽.

67) 김태식, 「5~6세기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2006, 157~158쪽.

앗겼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의외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G-1. 겨울 10월에 백제왕의 딸을 맞아들여 소비로 삼았다.⁶⁸⁾

G-2. 겨울 10월에 왕의 딸을 신라에 시집보냈다.⁶⁹⁾

G-3. 겨울 10월 경인 초하루 기유에 백제의 왕자 여창<명왕의 아들 위덕왕이다.>이 나라 안의 모든 군대를 내어 고려국을 향했는데, 백합의 들판에 보루를 쌓고 군사들 속에서 함께 먹고 잤다. 이 날 저녁에 바라보니 커다란 들은 비옥하고 평원은 끝없이 넓는데, 사람의 자취는 드물고 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 후 갑자기 북치고 피리 부는 소리가 들리니 여창이 크게 놀라 북을 쳐 대응하였다. 밤새 굳게 지키다가 새벽이 되어 일어나 텅 비었던 들판을 보니 군대가 푸른 산처럼 덮여 있었고 깃발이 가득하였다. 때마침 날이 밝자 ... 모두 5기가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와서 문기를 “어린아이들이 ‘우리 들판에 손님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맞이하는 예를 행하지 않는가! 우리와 더불어 예로써 문답할 만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 관위를 미리 알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여창이 “성은 (고려 왕실과) 동성이고, 관위는 한솔이며, 나이는 29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 이때 백제는 고려의 용사를 창으로 찔러 말에서 떨어뜨려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 머리를 창끝에 찔러 들고 돌아와 군사들에게 보이니, 고려군 장수들의 분노가 더욱 심하였다. 이때 백제군이 환호하는 소리에 천지가 찢어질 듯하였다. 다시 그 부장이 북을 치며 달려 나아가 고려왕을 동성산 위에까지 쫓아가 물리쳤다.⁷⁰⁾

6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4년 겨울 10월.

69)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31년 겨울 10월.

70)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4년 겨울 10월.

위의 기록은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긴 이후 백제가 신라와 고구려에 대응한 내용이다.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은 신라에게는 보복 대신에 왕녀를 시집보냈으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고구려와는 오히려 전쟁을 벌였다. 이 두 사건은 각각 신라와 고구려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라와 관련된 문제였음은 물론이다.⁷¹⁾

성왕이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은 신라에게 왕녀를 시집보낸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⁷²⁾ 따라서 이것은 대체로 신라에 대한 기만술 내지 위장전술로 이해하고 있다.⁷³⁾ 이와는 다르게 관산성 전투를 대비한 각종 고급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⁷⁴⁾ 인질의 성격인 왕녀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이며,⁷⁵⁾ 설사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도 그것을 백제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지도 의문이다.

한편 백합야 전투는 그 시기와 위치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백합야 전투의 시기는 기년을 수정하

71) 김영심은 백제가 신라의 동맹국인 고구려는 공격하고, 신라는 왕녀를 시집보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강은 양면정책을 실시한 것이라고 하였다(김영심, 앞의 논문, 2007, 255쪽).

72) 성왕은 왕녀를 신라에 시집을 보낼 정도로 한강유역에 대한 집착이 강하였다. 성왕의 이러한 모습은 한강유역의 회복이 필생의 작업이었기 때문으로 이해하거나(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3쪽), 고구려와 대결하면서 연합의 맹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발로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김영심, 앞의 논문, 2007, 250쪽). 한편 강종원은 신라가 백제의 곤궁해진 상황을 이용하여 왕녀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강종원, 앞의 논문, 2021, 76쪽).

73)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300쪽 ; 김갑동, 「신라와 백제의 관산성 전투」, 『백산학보』 52, 1999, 196쪽 ; 주보돈, 앞의 논문, 2006, 101~102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84쪽.

74) 김주성, 앞의 논문, 2000, 307쪽 ; 「관산성 전투의 배경」, 『중원문화논총』 12, 2008, 14쪽.

75) 강종원, 앞의 논문, 2021, 76쪽.

여 551년으로 보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⁷⁶⁾ 553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⁷⁷⁾ 그리고 백합야의 위치는 양주 일대로 이해하기도 하지만,⁷⁸⁾ 안성천 일대,⁷⁹⁾ 황해도나⁸⁰⁾ 황해도 蒜山,⁸¹⁾ 또는 고구려 남쪽 방면의 접경지나 변경 일대⁸²⁾ 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백합야 전투의 시기와 위치에 대한 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먼저 시기에 대한 문제는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백제가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신라의 한강 하류지역 장악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즉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면 백제가 고구려와 전투를 벌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지금의 경기도 서부지역인 서해안의 한강 하류지역까지는 장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⁸³⁾ 백제는 이 지역을 통하여 고구려의 영내로 진출하였던 것 같다.⁸⁴⁾

백제가 진출하였던 지역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료 G-3

76) 김주성, 앞의 논문, 2000, 304쪽 ; 김주성, 앞의 논문, 2008, 7쪽 ; 김현구 외,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II)』, 일지사, 2003, 268쪽 ; 김병남, 「백제 성왕대 관산성 전투의 의미」, 『전북사학』 36, 2010, 9쪽 주 12) ;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86쪽 주 94) ; 강종원, 앞의 논문, 2021, 67쪽.

77)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4쪽 ; 주보돈, 앞의 논문, 2006, 102쪽 ; 김영심, 앞의 논문, 2007, 255쪽 ;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96쪽 ; 방용철, 「553년 백제·고구려의 백합야 전투 검토」, 『민족문화논총』 73, 2019, 385쪽.

78)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4쪽 ;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96쪽.

79)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2013, 147~148쪽.

80) 이인철, 앞의 논문, 1997, 25쪽.

81) 坂本太郎 外, 『日本書紀』 下, 岩波書店, 1967, 106쪽 ; 김현구 외, 앞의 책, 2003, 267쪽.

82) 방용철, 앞의 논문, 2019, 381쪽.

83) 이인철, 앞의 논문, 1997, 25쪽.

84) 백제가 해로를 이용하여 진출하였다고 파악하기도 한다(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353쪽 ; 김수태, 『백제의 전쟁』, 주류성, 2007, 116쪽).

의 기록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백합야의 지형적인 특징에 대한 것으로, 이곳은 “커다란 들은 비옥하고 평원은 끝없이 넓은”지역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은 백제군에게도 매우 낯설었던 것 같다. 다음은 고구려군의 동향과 관련된 것으로, 백제군과의 전투 전후에 고구려군의 이동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백제가 백합야에 보루를 쌓은 지 하루 만에 고구려군이 도착하였고, 또 고구려왕을 동성산까지⁸⁵⁾ 쫓아갔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백합야의 위치는 고구려의 영내 깊숙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아마도 황해도지역인 연백평야의 배천이나 또는 재령평야의 재령 부근이 아닐까 한다.

553년에 발생하였던 두 사건은 결국 554년 관산성 전투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준비단계의 성격이었다. 백제는 이러한 준비를 마친 후에 드디어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H-1. 백제왕 명농이 가량과 함께 관산성을 공격해 왔다. 군주 각각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신주 군주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함에 비장 삼년산군의 고간 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모든 군사가 승세를 타고 크게 이겨 좌평 4명과 군사 2만 9천 6백명을 목 베었고, 한 마리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⁸⁶⁾

H-2. (조부 무력은) ... 일찍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백제왕과 그 장수 네 사람을 잡고 1만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⁸⁷⁾

85) 동성산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평양 동북의 대성산으로 추정하고 있다(坂本太郎 外, 앞의 책, 1967, 108쪽; 최근영 외, 『일본 6국사 한국관계기사 역주』,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4, 112쪽 주 2); 김현구 외, 앞의 책, 2003, 267쪽).

8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5년.

87)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 H-3.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친히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다. 신라의 북병이 일어나자 더불어 싸웠으나 난병에게 해침을 당하여 죽었다. 시호를 성이라 하였다.⁸⁸⁾
- H-4. 승성 3년 9월 백제 병사가 진성을 침범하여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 필을 빼앗아 갔다. ...⁸⁹⁾
- H-5. 겨울에 백제 웅천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⁹⁰⁾
- H-6.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웅천성을 공격해 왔으나 패하여 돌아갔다.⁹¹⁾
- H-7. 겨울 12월 백제가 하부의 杆率汶斯干奴를 보내 표를 올려 “... 12월 9일에 사라를 공격하러 보내면서, 신이 먼저 동방의 領인 物部莫奇武連을 보내 자기 방의 군사를 거느리고 함산성을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有至臣이 데리고 온 백성 竹斯 物部莫奇委沙奇가 불화살을 잘 쏘았습니다. 천황의 위령의 도움을 받아 이 달 9일 유시에 성을 불태우고 빼앗았으므로 한 사람의 사신을 보내 배를 달려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⁹²⁾
- H-8. ... 여창이 드디어 신라국에 들어가 구타모라에 보루를 쌓았다. 그 아버지 명왕은 여창이 행군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한참 동안 잠자고 먹지 못했음을 걱정하였다. 아버지의 자애로움에 부족함이 많으면 아들의 효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스스로 가서 위로하였다. 신라는 명왕이 직접 왔음을 듣고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내어 길을 끊고 격파하였다. 이때 신라에서 佐知村의 飼馬奴苦都<다른 이름은 谷智이다.>에게 “고도는 천한 奴이다. 명왕은 뛰어난 군주이다. 이제 천한 노

88)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32년 가을 7월.

89)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흥왕.

90)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10년 겨울.

91)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위덕왕 원년 겨울 10월.

92) 『일본서기』 권19, 흙명기 15년 겨울 12월.

로 하여금 뛰어난 군주를 죽이게 하려 한다.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얼마 후 고도가 명왕을 사로잡아 두 번 절하고 “왕의 머리를 베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명왕이 “왕의 머리를 노의 손에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고도가 “우리나라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노의 손에 죽습니다.”라고 하였다<다른 책에는 “명왕이 胡床에 걸터앉아 차고 있던 칼을 곡지에게 풀어 주어 베게 했다.”라고 하였다.>. 명왕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다. 허락하기를 “과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고통이 골수에 사무쳤다.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구차히 살 수는 없다.”라고 하고 머리를 내밀며 참수를 당했다. 고도는 머리를 베어 죽였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다른 책에는 “신라가 명왕의 두골은 남겨두고 나머지 뼈를 백제에 예를 갖추어 보냈다. 지금 신라왕이 명왕의 뼈를 북청 계단 아래에 묻었다. 이 관청을 도당이라 이름한다.”라고 하였다.>... 93)

위의 기록은 ‘한강 전역’의 마지막인 관산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다. 관산성 전투에 대한 기록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관련 기록들이 많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관산성 전투가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⁹⁴⁾ 그래서 관산성 전투는 대체로 7월에 시작하여 12월에 종료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⁹⁵⁾ 그 과정도 사

93)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 겨울 12월.

94) 이러한 의미에서 관산성 전투는 ‘관산성 戰役’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주보돈은 관산성 싸움은 일반적으로 전투(싸움)라고 불리지만, 엄밀하게는 전쟁이라 불러야 한다고 하였다(주보돈, 「백제 성왕의 죽음과 신라의 ‘국법’」, 『백제문화』 47, 2012, 130쪽).

95)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9~60쪽 ; 김영심, 앞의 논문, 2007, 263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95쪽.

료 H에 의하면 7월 백제의 신라 관산성 공격, 9월 백제의 신라 진성 공격, 10월 고구려의 백제 웅천성 공격, 12월 신라의 백제 공격과 성왕의 전사 등 몇 단계로 구분된다.⁹⁶⁾

관산성 전투는 백제·가야·왜와 신라·고구려가 관련되었던 대규모의 국제전이였다. 그만큼 각국이 여러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고, 상호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다양한 상황도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상황은 아무래도 관산성 전투의 핵심 인물인 백제 성왕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즉 ‘한강 전역’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백제의 성왕이 장식하였다는 것은 어찌면 성왕에게는 한강유역이 숙명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백제 성왕의 동선과 관련된 것이다. 신라에서는 이미 성왕이 전선에 직접 왔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 문제는 극비에 속하는 성왕의 움직임을 신라가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첩보의 내용이 성왕이 사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선에 이미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장 최신의 첩보이기 때문에 백제연합군의 핵심 계층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백제와 함께 관산성 전투에 참전한 대가야 세력이다.

대가야 세력들은 대내적으로는 ‘國亂’으로⁹⁷⁾ 표현될 만큼 정치세력들 사이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정국이 불안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백제와 신라로부터 계속되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특히 553년 신라의 신주 설치 이후 백제의 기대에 대한 회의감, 백제의 패배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신라의 압박에 대한 불안감 등 대내외

96) 관산성 전투는 크게 4단계와(김갑동, 앞의 논문, 1999, 201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97~198쪽 ; 서영교, 「여창의 백제연합군과 신라의 전쟁」, 『백제문화』 55, 2016, 58~62쪽) 3단계로(양기석, 「관산성 전투의 양상과 영향」, 『중원문화논총』 12, 2008, 35~39쪽) 구분하고 있다.

97) 『삼국사기』 권 32, 잡지1, 악, 가야금.

적으로 여러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백제에 부용되었던 ‘방관자적’인⁹⁸⁾ 대가야는 당시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주 군주인 김무력의 휘하에는 투항한 금관가야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우륵과 함께 망명하였던 대가야의 세력들도 신주의 군사로 편제되어 참전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대가야는 백제의 연합군으로 관산성 전투에 참전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들 대가야 세력들 사이에는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일정한 교감이 형성되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그리하여 성왕의 동정과 같은 극비 사항이 대가야 세력들에 의해서 신라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⁹⁹⁾ 이러한 ‘가야계’의 활동은 김무력과 연결되면서 이후 그의 정치적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신라에게 사로잡힌 성왕은 맹세를 여겨서 신라의 국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성왕이 어긴 맹세가 무엇인지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신라에 왕녀를 시집보낸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성왕은 왕녀를 시집보내기 전에 신라에게 한강 하류지역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다고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신라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것 같다.¹⁰⁰⁾ 그리고 성왕은 자신의 맹세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왕녀를 시집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삼년산군의 고간 도도가 성왕이 맹세를 어겼다면 국법을 운운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

98) 김태식, 앞의 책, 1993, 302쪽.

99) 김병남은 성왕의 죽음과 관련하여 백제 세력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을 추정하였다. 즉 당시 백제에서도 장기간 지속되는 전쟁에 반대하거나 고구려의 해량과 같은 존재나 세력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김병남, 앞의 논문, 2010, 24쪽). 이러한 세력은 신라에 대한 공격 문제를 두고 여창과 대립하였던 ‘기로’ 세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0)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205~206쪽 ; 주보돈, 앞의 논문, 2012, 146쪽.

으로 추정된다.

신라에게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겼던 피해자인 백제 성왕이 가해자인 신라 진흥왕에게 항의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불문에 붙이겠다는 맹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녀까지 시집을 보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백제 성왕이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열망과 집착이 얼마나 강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산성 전투는 가야지역을 둘러싸고 신라와 백제가 벌인 경쟁의 완결판임과¹⁰¹⁾ 동시에 ‘한강 전역’의 완결판이기도 하였다. 신라는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하였으며, 이후 가야지역의 낙동강유역까지 장악하면서 삼국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서해안의 당항성을 중심으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독자적인 대증외교를 전개하였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¹⁰²⁾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551년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의 각국 상황

순번	연 대		국 명					비 고
	연	월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왜	
1	551	정월	연호를 개국으로 개원함					
2		3	낭성으로 순행함				백제에게 보리 씨앗을 내려줌	
3		3	우륵을 불러 음악을 연주케 함					

101) 강종원, 앞의 논문, 2021, 77쪽.

102)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결과와 영향에 대한 문제는 별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순번	연 대		국 명					비 고
	연	월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왜	
4		9			돌궐이 공격함			
5		(9)	거칠부가 고구려를 침략함		신라가 10성 빼앗음			려라밀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됨
6	이해		백제·임나와 고구려 정벌함			백제·신라와 고구려 정벌함	백제왕이 신라·임나와 고구려 정벌함	
7	552		계고 등을 우륵에게 보내 음악을 배우게 함		장안성을 쌓음			
8		5					백제 등이 구원을 요청함	
9		10					백제 성왕이 불상 등을 보냄	
10	이해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버림. 신라가 들어가 살음	
11	553	정월					백제가 군사를 요청함	
12		정월					백제의 사신이 돌아감	
13		2	월성 동쪽에 황룡사를 지음					

순번	연 대		국 명					비 고
	연	월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왜	
14		6					내신을 백제에 보냄	
15		7	백제의 동북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고 무력을 군주로 삼음	신라가 동북쪽의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함				
16		8					백제가 구원을 요청함	
17		10	백제왕의 딸을 소비로 맞음	왕의 딸을 신라에 시집보냄			백제가 백함야새에서 고구려와 싸움	
18	554	정월					백제가 내신 등에게 군대에 대해 물음	
19		2					백제가 구원병을 요청함	
20		3					백제의 사신이 돌아감	
21		5					내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에 감	
22		6					유지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에 옴	
23		7	명활성을 수리해 쌓음					

순번	연 대		국 명					비 고	
	연	월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왜		
24		7	백제 성왕이 가량과 관산성을 공격하였으나 도도가 죽임	왕이 신라에게 해침을 당하여 죽음			백제 성왕과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함	여창이 신라의 구타모라에 보루를 쌓음	『삼국사기』에는 성왕의 죽음이 7월로 기록됨
25		9	백제가 진성을 공격함						
26		10		고구려가 웅천성을 공격함	백제의 웅천성을 공격함				『삼국사기』에는 위덕왕대로 기록됨
27		12						함산성을 공격하여 빼앗음	『일본서기』에는 함산성으로 기록됨
28		12						신라의 고도가 성왕을 죽임	『일본서기』에는 성왕의 죽음이 12월로 기록됨
29		12						여창이 셋길로 도망하여 돌아옴	

4. 맺음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은 551년 신라와 백제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때부터 554년 관산성 전투까지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강 戰役(551~554)’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한강 전역’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전반기는 551년 한강유역의 진출부터 553년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역을 빼앗기 전까지로, 이 시기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과정이고, 거칠부가 활동하였다. 그리고 후반기는 553년 신라의 신주 설치부터 554년 관산성 전투까지로, 이 시기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영역화하는 과정이고, 김무력이 활동하였다. ‘한강 전역’의 특징은 백제·신라·가야·고구려·왜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였던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한강유역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라가 백제와 한강유역의 진출을 협의하였던 시기는 550년 후반기 무렵에 백제 성왕이 한강유역의 진출 계획을 먼저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구려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였던 거칠부 등이 공략 시기와 지역, 방법 등의 군사 작전을 비롯하여 전후 처리에 대한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략 시기는 신라와 백제가 동시에 고구려를 공략한 것이 아니고, 며칠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 공략 지역은 신라가 한강 상류지역을, 백제가 한강 하류지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상호 구분하였다. 양국은 공략 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고구려의 방어 체계를 혼란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공략 방법은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고, 일정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상이한 지역을 공략하는 위장전술 또는 기만전술을 사용하여 양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신라와 백제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였던 시기는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9월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인물은 거칠부인데, 젊었을 때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신라가 고현(지금의 철령)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경험이 반영되었고, 이 부근에서 활동하였던 헤랑법사를 만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신라와 백제는 한강유역을 차지한 얼마 후부터 틈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신라가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한 직후에 고구려와 밀약이 추진되었던 것 같다. 주목되는 것은 ‘밀약’을 주도한 것은 대체로 신라로 이해하는데,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불안하고 다급하였던 고구려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구려가 진흥왕의 말에 감복하였다는 표현에는 이미 고구려가 밀약을 제안하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진흥왕의 말은 고구려가 밀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신라는 려라밀약을 바탕으로 553년 백제의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였다. 신라가 신주를 설치한 것은 한강유역을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실시하여 거점지배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신라와 고구려는 각각 현실적으로 추구하였던 목적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려라밀약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백제는 553년 8월 이전에 신라와 고구려가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백제 성왕의 국제정세의 판단 실패에 따라 신라에게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겼다.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보다는 가야지역을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게 선택하여 이 지역을 포기하였고, 이후 더 이상 한강유역으로는 진출하지 못하였다.

신라의 신주 설치의 신라의 정치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주는 진흥왕의 개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개국과 신주는 같은 해에 한강유역의 진출이라는 같은 목적을 계기로 만들어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전과는 다른 ‘나라를 열은[開國]’ 신라의 ‘새로운 주[新州]’라고 하는 진흥왕의 정치적 이상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신주는 진흥왕이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개국의 결과로써 한강유역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주에 ‘가야계’인 김무력을 군주로 삼았던 것은 그의 활발한 군사활동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복속된 지역을 영역화하고, 복속민들을 포섭하여 신라화를 꾀하려는 대복속민정책과도 관련되었다. 이후 김무력은 역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거칠부와도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진흥왕대의 정국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553년 신라에게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긴 백제는 신라에게는 보복 대신에 왕녀를 시집보냈으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고구려와는 백합야 전투를 벌였다. 이 두 사건은 554년 관산성 전투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의 성격이었다. 백합야의 위치는 고구려의 영내 깊숙한 지역인 황해도 연백평야의 배천이나 재령평야의 재령 부근으로 추정된다.

554년 백제는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면서 반격을 시도하였다. 관산성 전투는 대규모의 국제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다. 따라서 예기치 못하였던 다양한 상황도 발생하였는데, 가장 극적인 상황은 관산성 전투의 핵심 인물인 백제 성왕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즉 ‘한강 전역’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백제의 성왕이 장식하였다는 것은 어쩌면 성왕에게는 한강유역이 숙명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이미 성왕이 전선에 직접 왔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대가야 세력인데, 신주의 군사로 편제된 가야세력과 관산성 전투에 참여한 대가야 세력 사이에 일정한 교감이 형성되어 성왕의 동정을 신라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산성 전투는 가야지역을 둘러싸고 신라와 백제가 벌인 경쟁의 완결판임과 동시에 ‘한강 전역’의 완결판이기도 하였다. 신라는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하였고, 이후 가야

지역의 낙동강유역까지 장악하면서 삼국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서해안의 당항성을 중심으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독자적인 대중외교를 전개하였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원고투고일 : 2021. 9. 29, 심사수정일 : 2021. 11. 15, 게재확정일 : 2021. 11. 29.)

주제어 : 진흥왕, 성왕, 한강유역, 한강 전역, 려라밀약, 관산성 전투

<참고문헌>

1. 저 서

- 김덕원,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2007
<http://www.uci.or.kr/G701:B-00089321002>
- 김수태, 『백제의 전쟁』, 주류성, 2007
<http://www.uci.or.kr/G701:B-00091458687>
-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http://www.uci.or.kr/G701:B-00047889091>
- 김현구 외,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Ⅱ)』, 일지사, 2003
<http://www.uci.or.kr/G701:B-00077624799>
-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http://www.uci.or.kr/G701:B-00060576971>
-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http://www.uci.or.kr/G701:B-00091429370>
- 이정숙, 『신라 중고기 정치사회 연구』, 혜안, 2012
<http://www.uci.or.kr/G701:B-00093246482>
-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http://www.uci.or.kr/G901:A-0006492644>
- 최근영 외, 『일본 6국사 한국관계기사 역주』,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4
<http://www.uci.or.kr/G703:RA101-01100601.199501170000 01201:1>
-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2013
<http://www.uci.or.kr/G901:A-0006476779>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http://www.uci.or.kr/G901:A-0008423223>
- 坂本太郎 外, 『日本書紀』□下, 岩波書店, 1967

2. 논 문

- 강민식, 「552년 백제의 한강유역 포기[棄]와 신라·고구려의 밀약설」, 『선사와 고대』 40, 2014
<http://doi.org/10.23024/pah.2014..40.139>
- 강종원, 「성왕의 대외정책과 551년 전쟁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37, 2021
- 김갑동, 「신라와 백제의 관산성 전투」, 『백산학보』 52, 1999
- 김덕원, 「신라 진지왕대의 정국운영」, 『이화사학연구』 30, 2003
<http://www.uci.or.kr/G704-001256.2003..30.032>
- _____,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배경」, 『서울과 역사』 109, 2021
<http://doi.org/10.22827/seoul.2021.109.001>
- 김병남, 「백제 성왕대 관산성 전투의 의미」, 『전북사학』 36, 2010
<http://www.uci.or.kr/G704-002047.2010..36.006>
- 김수태, 「백제 성왕대의 변경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44, 2006
<http://www.uci.or.kr/G704-000844.2006..44.009>
- 김영심, 「관산성전투 전후 시기 대가야·백제와 신라의 대립」,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7
<http://www.uci.or.kr/G300-cX1411133.vn0p143>
- 김주성, 「성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2000
<http://www.uci.or.kr/G901:A-0005994844>
- _____, 「관산성 전투의 배경」, 『중원문화논총』 12, 2008
- 김태식, 「5~6세기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2006
- 노중국,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 28, 1981
- _____,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 2006

- 노태돈, 「고구려의 한수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1976
<http://www.uci.or.kr/I410-ECN-0101-2009-911-018386411>
- 박윤선, 「6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의 통호와 이나사마도」, 『역사와 현실』 77, 2010
<http://www.uci.or.kr/G704-000054.2010..77.002>
- 방용철, 「553년 백제·고구려의 백합야 전투 검토」, 『민족문화논총』 73, 2019
<http://doi.org/10.15186/ikc.2019.12.31.10>
- 백승충, 「우륵의 망명과 신라 대약의 성립」, 『한국문화연구』 29, 2007
- 선석열, 「한강유역 쟁탈을 둘러싼 삼국의 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 2013
<http://www.uci.or.kr/G704-SER000000776.2013.44.007>
- 양기석, 「관산성 전투의 양상과 영향」, 『중원문화논총』 12, 2008
-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http://doi.org/10.35300/bjclab.1.48.201302.129>
- 유우창, 「6세기 우륵의 망명과정」, 『역사와 경계』 108, 2018
- 이도학, 「신라의 북진전략에 관한 신고찰」, 『경주사학』 6, 1987
<http://www.uci.or.kr/G701:C-00056342882>
- 이영재, 「려라밀약설의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0, 2015
<http://www.uci.or.kr/G704-000848.2015..80.008>
- 이인철,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정에 대한 고찰」, 『향토서울』 57, 1997
<http://www.uci.or.kr/G901:A-0001192831>
- 이일규, 「신라 진흥왕대의 새 영토·주민 시책」, 『한국고대사연구』 96, 2019
<http://doi.org/10.37331/JKAH.2019.12.96.249>
- 이정숙, 「진흥왕대 우륵 망명의 사회 정치적 의미」, 『이화사학연구』 30, 2003
<http://www.uci.or.kr/G704-001256.2003..30.012>
-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2002
<http://www.uci.or.kr/G704-001254.2002..18.005>

- 임평섭, 「신라 진흥왕대 주의 폐치와 순수 -진흥왕순수비를 통해 살펴본
순수의 전략적 의미」, 『신라문화』 48, 2016
<http://www.uci.or.kr/G704-001251.2016.48.48.005>
- _____, 「진흥왕 집권 초기의 정치구도와 한강 유역 진출」, 『신라문화』
53, 2019
<http://doi.org/10.37280/JRISC.2019.02.53.57>
- 장창은,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과 관산성 전투」 『진단학보』 111, 2011
<http://www.uci.or.kr/G704-000336.2011..111.003>
- 전덕재, 「관산성 전투에 대한 새로운 고찰」, 『신라문화』 34, 2009
<http://www.uci.or.kr/G704-001251.2009.34.34.003>
- 주보돈,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 _____, 「백제 성왕의 죽음과 신라의 ‘국법」, 『백제문화』 47, 2012
<http://doi.org/10.35300/bjclab.1.47.201208.129>
- _____, 「거칠부의 출가와 출사」, 『한국고대사연구』 76, 2014
<http://www.uci.or.kr/G704-000848.2014..76.006>
- _____, 「황룡사의 창건과 그 의도」, 『한국사연구』 176, 2017
<http://www.uci.or.kr/G704-000361.2017..176.001>
- 황보경, 「신주 위치에 대한 연구」, 『백산학보』 53, 1999

(Abstract)

The process of advance into the Han River basin during the period of King Jinheung of Silla Dynasty

Kim, Deok-won

The process of advancing into the Han River basin of King Jinheung of Silla ranges from the time of advancing into the Han River Basin in 551 to the Battle of Gwansanseong Fortress in 554. This can be referred to as ‘the Han River Military Campaign(한강 戰役[551-554])’ of that period.

The two countries of Silla and Baekje would carry out surprise attacks to break up Goguryeo's defense system, using camouflage tactics and deception ones. At this time, Geochilbu(거칠부)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and his experience of youth was very helpful for doing his duty.

In 553, Silla took away Baekje's frontier area and set up Sinju(新州) which means new area of state. In the same year, Founding the Country(開國) and Sinju had a common aspect in that they were performed with the same goal of advancing into the Han River basin. In other words, it reflected King Jinheung's political ideal of ‘a new ju(신주)’ of Silla which ‘opened a new state(개국)’ different from before. Sinju has a meaning that symbolizes the Han River basin itself as a result of the country's founding. And Kim Mu-Ryuk(김무력) was appointed as the governor of Sinju, which is related to the policy of subjugation of people of the region.

In 554, Baekje attacked Gwansanseong Fortress of Silla, and Silla was preparing for this in advance by obtaining information that King ‘Seong’ had come directly to the front line. At that time, it is presumed that a certain sympathy was formed between the Gaya forces, which were organized as the military power of Sinju, and the Daegaya forces, who participated in

the Battle of Gwansanseong Fortress, and conveyed King Seong's movements.

Keywords : King Jinheung(진흥왕), King Seong(성왕),
Han River basin(한강유역), Han River Military Campaign(한강 전역),
Goguryeo between Silla a secret agreement(러라밀약),
Battle of Gwansanseong Fortress(관산성 전투)